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制字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Theory of Hangeul Formation as Presented in the Hunminjeongeum
Haerye

저자
(Authors) 백두현
 Paek, Doo-hyeon

출처
(Source) [어문학 123](#), 2014.3, 39-66 (28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23](#), 2014.3, 39-66 (2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83385>

APA Style 백두현 (2014).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制字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어문학*, 123, 39-6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3 17:4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制字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백 두 현**

〈차례〉

- | | |
|--------------------------------------|--------------|
| 1. 들어가기 | 2.1. 초성자 제자론 |
| 2.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制字論) 분석과 비판적 검토 | 2.2. 중성자 제자론 |
| | 3. 결론 |

1. 들어가기

문자체계로서의 훈민정음, 훈민정음 제자의 원리를 해설한 책으로서의 『훈민정음』,¹⁾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세종의 정책 등에 관해 우리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국어국문학자, 역사학자, 문헌학자, 역학자(易學者), 한글 글꼴 연구자 등에 의해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훈민정음 연구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²⁾ 이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훈민정음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5911)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본고에서 『훈민정음』은 텍스트(책)을 뜻하고, 괄호 표기가 없는 훈민정음은 문자를 지시한다.
- 2) 훈민정음의 연구 논저 목록을 정리한 이현희(1990/2003)와 김슬옹(2007)의 작업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훈민정음 관련 원전과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 논저를 빠짐없이 목록화하고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자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원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훈민정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훈민정음에 관한 모든 연구 논저 목록의 집대성과 주제별

성과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주요 주제들, 예컨대 훈민정음의 친제설과 협찬설, ‘자방고전’(字倣古篆)의 해석, 해례본에 등장한 역학 및 음운학의 술어 해석,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한 종합적 해석 등 훈민정음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어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훈민정음 관련 원전 및 연구 논저의 집대성은 훈민정음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인이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훈민정음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³⁾

필자는 이 논문에서 『훈민정음』 해례에 기술된 제자론⁴⁾에서 그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이것이 내포한 의미를 비판적 관점에서 논하려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자론의 문제점들은 선행 연구자가 이미 언급한 것도 있고, 필자의 관점에서 처음 제기하는 것도 있다.

『훈민정음』 해례에 기술된 제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지금까지의 훈민정음 연구에서 소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⁵⁾ 문자체계로서 훈민정음이 지닌 과학적 특성과 창의적 제자 원리 등 이 문자의 우수성이 강조되면서 해례의 내용에 포함된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가

정리가 될 것이다. 이 일은 국어국문학자, 역사학자, 문헌학자, 한글 글꼴 연구자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훈민정음에 관한 정보와 지식은 한국인이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천 자원이다. 훈민정음이 한국인의 긍지와 창의성을 북돋운다고 보는 생각은 이흥구(전 국무총리)의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드러나 있다.

“21세기 세계화된 국제경쟁 시대에는 국토, 인구, 군사력의 크기와 같은 이른바 하드파워보다도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창의력, 즉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훨씬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나라들 사이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시대변화란 말인가.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후손인 우리 국민의 창의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니 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힘과 자신감의 원천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우리의 운명을 자율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창의성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자유로부터 나온다.”(이흥구, 격변 한반도 … 우리 하기 달렸다. 중앙일보 2011.12.31 수록, 밑줄은 필자)

- 4) 여기서 말하는 ‘제자론’(制字論)은 해례(5해 1례)에 기술된 제자 관련 설명을 가리킨다. 『훈민정음』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어제 서문을 포함한 예외, 5해 1례로 구성된 해례,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김유범(2009)의 연구는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 내용이 갖는 문제점을 고찰한 본격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다른 관점에서 『훈민정음』 해례에 접근한다.

벼이 다루어졌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행하고자 하는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결코 훈민정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작업은 오히려 훈민정음 제자론의 심층적 이해에 유용한 것이며, 이 문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2.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制字論) 분석과 비판적 검토

2.1. 초성자 제자론

1) 아음 기본자의 대응 음을 ㅇ [ŋ]이 아닌 ㄱ [k]으로 삼은 점

<해례본의 내용 분석>

『훈민정음』 제자해의 아음 기본자 설정 항에는 다른 기본자와 달리 장황한 설명이 붙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원문과 번역문을 해례본의 기술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⁶⁾

- ① ㄴ ㄹ ㅇ 其聲最不厲 故次序雖在於後 而象形制字則爲之始. <해례 3b>
 ㄴ, ㄹ, ㅇ은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아니하므로⁷⁾ 차례는 비록 뒤에 있으나, 상형하여 글자를 지음에는 시초가 된다.
- ② ㅅ ㅈ 雖皆爲全清 而ㅅ比ㅈ 聲不厲 故亦爲制字之始. <해례 3b>
 ㅅ, ㅈ은 비록 다 전청이지만, ㅅ은 ㅈ에 비해 소리가 세지 아니하므로 역시 글자를 지음에 시초가 된다.
- ③ 唯牙之ㅇ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해례 3b-4a>
 오직 아음 ㅇ(옛이음)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는 ㅇ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운서에서 의모(疑母, ㄹ)와 유모(喻母, ㅇ)가 서로 많이 섞여 쓰였다.⁸⁾ (의모자 ㅇ도) 목구멍을 상형

6) 아래에서 제시한 한문 원문의 번역문은 강신항(1987/1994), 유창균(1998), 조규태(2010)를 참고하여 필자가 다듬은 것이다.
 7) ‘最不厲’를 직역하면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아니하므로’가 된다. 달리 말하면 ‘그 소리가 가장 약하다는 뜻이다.’
 8) 중고 한음의 의모(疑母)는 14세기 이전에 소실되어 유모(喻母)와 서로 혼동되었음은

한 것이어서 아음 글자를 지음에 시초로 삼지 않는다.

④ 盖喉屬水而牙屬木 ○雖在牙而與○相似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 <해례 4a>

대개 후음[목구멍]은 (오행의) 수(水)에 속하고, 아음[어금니]은 목(木)에 속하는 고로 ○이 비록 아음에 있지만 ○과 비슷하다. 이는 나무의 움이 물에서 생겨나 유연하고 물기가 많음과 같다.

①에서 설음의 기본자로 ㄴ을, 순음의 기본자로 ㅁ을, 후음의 기본자로 ㅇ을 삼은 까닭을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않기[其聲最不厲] 때문이라고 밝혔다. ②에서는 ㅅ을 치음의 기본자로 삼은 까닭을, ㅅ이 같은 전청자 ㅈ에 비해 그 소리가 세지 않기[不厲] 때문이라 하였다. 즉 ①과 ②는 설음, 순음, 후음, 치음의 기본자 설정 기준을 밝힌 것으로, 기본자의 조건은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아니함’이다.

그런데 아음의 기본자에 대해 설명한 ③에서는 ‘기성최불려(其聲最不厲)’라는 기준을 채용하지 않았다. 아음에서 ‘기성최불려’한 소리는 [ŋ]인데 이것을 기본자로 삼지 않은 것이다. ③에서 그 까닭이 부연 설명되어 있으니, 운서에서 의모(疑母)와 유모(喻母)⁹⁾가 서로 혼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음의 기본자로 삼아야 할 [ŋ]음 즉 의모가 중국의 운서(韻書)에서 음가가 없는 후음의 유모와 많이 섞여 쓰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ŋ]음 즉 의모를 기본자로 삼지 않았다고 제자해 집필자는 해명해 놓은 것이다.

④에서는 아음자 ㅇ과 후음자 ○의 글자꼴이 서로 닮은 까닭을 오행의 水(=후음자)와 木(=아음자)의 상관성에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아음자 ㅇ과 후음자 ○의 글자꼴이 서로 닮은 이유는 운서에서 의모와 유모가 혼용되는 점, 그리고 오행에서 木에 해당하는 아음과 水에 해당하는 후음이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판적 검토>

제자해에서 초성 오음의 기본자 설정 원칙은 ‘其聲最不厲’(그 소

『중원음운』(1324년)을 통해 알 수 있다(이돈주 2003:51).

9) 의모(疑母)와 유모(喻母)는 성운학에서 자음 부류를 가리키는 용어로 36자모 중의 하나이다. 의모(疑母)는 아음 [ŋ]를 가리키고, 유모(喻母)는 음가가 없는 후음 [ɰ zero]를 가리킨다.

리가 가장 세지 아니함. 가장 약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음에서만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 소리가 약간 센 전침음 [k]를 기본자의 제자 대상으로 삼았다.¹⁰⁾ 그 이유는 운서에서 아음자 의모와 후음자 유모가 서로 많이 혼용된 사실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ŋ]음이 어두의 음절초에서 실현되기 어려움은 많은 언어에서 널리 관찰되는 언어 보편적 음소분포제약이다. 중세국어에서 ‘바○그리’(방울)과 같은 극소수 단어를 제외하고는 비어두 음절초에서 초차 [ŋ]음이 실현되기 어려웠다. 중국 한자음의 음절초에서 [ŋ]음은 [∅(零, 無音)]가 되는 것이 일반적 음운변화였다. 이 음운변화를 아음과 후음의 유사성으로 이해하고, 아음 기본자 설정에 이 둘을 연관 지음으로써 위와 같은 제자해의 설명에 나타난 것이다.

아음 중에서 소리가 가장 세지 아니한 것[最不厲]은 ○[ŋ] 음이다. 이 음을 아음의 기본자 제자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당시의 의모와 유모가 혼용된 한자음에 이끌려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음자 ○은 결국 오랫동안 쓰이지 못하고 후음자 ○에 그 자형이 합류되어 버렸다. 중국의 운학이 훈민정음 창제의 지배적 이론이 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음 기본자에 대한 창제자의 판단은 그 시대의 학문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불려(最不厲)’의 조건에 맞는 [ŋ]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아음의 기본자로 잡지 않은 결과, 훈민정음 초성자의 중요 제자 원리인 가획(加劃)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초성자 제자에서 가획의 적용 양상은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0) 이 점은 김완진(1975)(1984)에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김완진(1984:5)은 “‘ㄱ’을 가지고 아음의 기본자로 삼은 것은 자체의 논리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배반이다. 자음의 기본자는 폐쇄음이 아닌 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공통된 원칙이다. 따라서 설음의 ‘ㄴ’, 순음의 ‘ㄹ’, 치음의 ‘ㅅ’, 후음의 ‘ㅇ’등이 모두 그에 맞게 책정되어 있는데, 유독 첫머리의 아음에 대해서는 폐쇄음 ‘ㄱ’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슨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신랄히 비판하였다.

<표 1> 초성자 가획의 단계별 적용 양상

| 음류 | 기본자 | 1단계 가획 | 2단계 가획 |
|----|-----|--------|--------|
| 아음 | ㄱ | ㅋ | |
| 설음 | ㄴ | ㄸ | ㅌ |
| 순음 | ㄹ | ㄺ | ㄻ |
| 치음 | ㅅ | ㅆ | ㅊ |
| 후음 | ㅇ | ㆁ | ㆏ |

기본자에 가획을 하는 음성학적 근거는 ‘소리가 약간 더 세다’는 것이다. 예컨대 “ㅋ은 ㄱ보다 소리가 약간 더 세게 나오므로 가획을 한다”(ㅋ比ㄱ 聲出稍厲 故加劃)고 하였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다른 기본자는 1단계 가획과 2단계 가획이 성립되지만, 아음의 경우만 1단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기본자는 2단계 가획에 의해 유기음 글자 ㅌ 등이 만들어지는데 비해, 아음은 1단계 가획에 의해 유기음 글자 ㅋ이 나온다. 이는 아음의 기본자를 ㅇ[ŋ]이 아닌 ㄱ[k]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음의 2단계 가획에 공백이 발생하여 제자 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¹¹⁾

훈민정음 창제자가 아음의 기본자 ㄱ에 아음 [ŋ]음을 배정했다고 가정해 보면, 1단계 가획을 통해 ㅋ[k], 2단계 가획을 통해 ㅋ[kh]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훈민정음 창제자가 중국 운서에서 의모와 유모가 혼용되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ㄱ[ŋ]→ㅋ[k]→ㅋ[kh]와 같은 아음 계열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을 채용했다면 위 표와 같은 제자 체계의 공백을 방지하여 가획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아음 ㅇ자와 후음 ㆏자가 자형이 비슷하여 합류되어 버린 일도 없었을 것이며, 합류된 ㅇ이 두 개 음가 [ŋ]과 [ɰ]를 가짐으로써 일자일음(一字一音)의 원칙을 어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자가 중국 한자음에서 의모와 유모가 혼용된 점에 강하게 이끌려 아음의 기본자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가획 체계의 불균형을 빚어냈음은 물론, 17세기 이후의

11) 그러나 문자체계가 반드시 일관성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 비판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 문자체계의 일관성 문제를 따지는 것은 훈민정음과 같이 체계적 제자 원리를 가진 문자에서나 가능하다.

문헌에서 ㅁ자와 ㅂ자가 서로 동일하게 되어 버려 문자 체계와 그것이 표시하는 음가 간의 정합성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ŋ]음을 기본자로 삼지 않은 훈민정음 창제자를 위해 그 나름대로 이유 있는 변명을 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ŋ]음이 지닌 분포상의 제약이다.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15세기 국어에서도 [ŋ]음은 어두(語頭) 즉 낱말의 첫소리로 거의 쓰이지 않는 분포 제약을 갖고 있다.¹²⁾ 중세국어 문헌에 [ŋ]음을 나타낸 ㅁ이 비어두 음절의 초성에 쓰인 예(바ㅁㄱ르, 니ㅁㅣ다 등)는 있지만 어두(語頭) 음절의 초성에 쓰인 예는 없다. 이 점은 ㄴ, ㄹ, ㅇ, ㅅ 등 다른 기본자의 음가가 가진 분포의 자유로움에 비해, [ŋ]이 지닌 커다란 제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분포의 제약이 극심한 [ŋ]음을 아음의 기본음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을 수도 있다.

2) 치음의 기본자 설정과 치음 계열의 상관성

<내용 분석>

⑤ ㅅㅈ雖皆爲全清 而ㅁ比ㅈ 聲不厲 故亦爲制字之始. <해례 3b>

ㅅㅈ은 비록 다 전청이지만, ㅁ은 ㅈ에 비해 소리가 세지 아니하므로 역시 글자를 지음에 시초가 된다.

⑥ ㅋ比ㄱ 聲出稍厲 故加畫 ㄴ而ㄷ ㄷ而ㅌ ㄹ而ㅍ ㅂ而ㅃ ㅅ而ㅆ ㅈ而ㅉ ㅊ而ㅊ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ㅇ爲異. <해례 1b-2a>

ㅋ은 ㄱ에 비해 소리가 약간 세게 나므로 획을 더하였다. ㄴ과 ㄷ, ㄷ과 ㅌ, ㄹ과 ㅍ, ㅂ과 ㅃ, ㅅ과 ㅆ, ㅈ과 ㅉ, ㅇ과 ㆁ, ㆁ과 ㆆ 등도 그 소리로 인하여 획을 더한 뜻은 다 같으나 오직 ㅇ만 다르다.

⑤는 치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앞의 ②를 다시 가져 온 것이다. 치음 계열에서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아니한 것[最不厲]은 ㅁ[z]이다. 아음에서 ‘최불려(最不厲)’한 [ŋ]음에 대응하는 글자를 기본자로 삼지 않았듯이 치음에서도 ‘최불려(最不厲)’한 [z]음에 대응하는 글자를 기본자로 삼지 않았다. 설음 기본자 ㄴ[n]과 순음 기본자 ㄹ[m]에 견주어 보면, 아음에서는 불청불탁(최불려)에 해당하는 [ŋ]음,

12) [ŋ]음이 지닌 이런 분포의 제약은 언어 보편적 경향이 강한 일반적 현상이다.

치음에서도 불청불탁에 해당하는 [z]음에 대응하는 문자를 기본자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위 ⑤에서 보듯이 치음에서는 전청 [s]음에 대응하는 ㅅ을 기본자로 삼아서 ‘최불려’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⑥은 소리가 약간 세게[稍厲] 나오는 음에 가획한 원리를 ‘인성가획(因聲加畫)’이라 하여 음류 상호간의 평행적 관계를 매우 함축적이면서도 간결하게 기술한 내용이다.

<비판적 검토>

오음에 해당하는 각 기본자의 음가가 ‘최불려’ 혹은 불청불탁음이 어야 한다는 원칙을 잘 지켰더라면, 오음의 기본자와 그 음가는 다 음과 같이 되어야 했다. 아음에서는 [ŋ], 설음은 [n], 순음은 [m], 치음은 [z], 후음은 [h]음이 ‘최불려’의 원칙에 부합하는 기본자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아음과 치음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위 1)에서 지적했듯이 아음의 경우 불청불탁음 [ŋ]를 취하지 않고 전청음 [k]에 대응하는 글자를 기본자로 삼았다. 치음에서도 불청불탁음 [z]를 취하지 않고 전청음 [s]에 대응하는 글자를 기본자로 삼았다.

그런데 치음 계열에서는 가획의 두 단계를 채울 수 있는 다른 음이 존재하고 이에 대응하는 글자를 제자함으로써 가획 체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훈민정음 초성 체계의 다른 계열 음과 달리 치음에 속한 음들은 그 개수가 많았다. 치음에는 ㅅ:ㅆ 계열과 ㅈ:ㅊ:ㅉ 계열이라는 두 계열이 존재하였다. 여기서 병서자를 각각 제외하면 ㅅ, ㅈ, ㅊ이 남는다. 이 세 글자를 기본자, 가획 1단계 글자, 가획 2단계 글자에 각각 배정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훈민정음 창제자는 ㅅ:ㅆ 계열과 ㅈ:ㅊ:ㅉ 계열을 각각 하나의 독립 계열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둘을 묶어서 하나의 치음 계열로 보았다. 그리하여 ㅅ을 치음의 기본자에, ㅈ을 가획자에 각각 배당하여 가획의 체계적 균형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다.¹³⁾

이런 조치에 따라 [z]에 대응되는 불청불탁음 ㅈ을 불가피하게 이 체자로 돌린 것이다. ㅈ은 그 글자꼴에 나타나 있듯이 치음 기본자

13) 이 조치는 중국 성운학에 존재한 치두음과 정치음의 구별이 조선 한자음에 없다는 사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ㅅ을 공유하고 있다. ㅈ과 ㅊ을 비교해 보면 ㅈ은 ㅅ의 상부에 가획을 하였고, ㅊ은 ㅅ의 하부에 가획을 하였다. 자형으로 보면 ㅊ은 처음 ㅅ의 이체자가 아니라 가획자라 할 수도 있다. [ㄷ]음에 대응하는 글자를 처음의 기본자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ㅊ을 이체자로 처리하게 된 것이다.

음성적으로 볼 때 [s](ㅅ)의 유성음(불청불탁음)은 [z](ㅊ)이다. 고유어 ‘어버△ | -어버시’의 대응관계에서¹⁴⁾ ㅅ:ㅊ은 무성:유성의 관계를 맺고 있음이 확인된다. 성운학에서 [s]는 치두음 심모(心母)이고, [z]는 치두음 사모(邪母)에 대응한다. 15세기의 ㅈ은 치두음의 정모(精母) [ts]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ㅈ의 불청불탁음은 사모(邪母) [z]이 아니라 종모(從母) [dz]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15세기 당시의 조선 한자음에 치두음 정모[ts]에 대응하는 불청불탁음 종모 [dz]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글자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여 치두음 심모[s]에 대응하는 불청불탁음 ㅊ [z]자만 만들었던 것이다. 훈민정음 치음 계열에 속하는 초성자와 그 음가, 그리고 이것이 성운학의 자모와 대응하는 관계는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⁵⁾

<표 2> 치음 계열의 음가와 자모 체계

| 탁음 | | | 전청음 | | | 차청음 | | |
|-----|------|-----|-----|------|-----|-----|--------------------|-----|
| 정음자 | 음가 | 성모자 | 정음자 | 음가 | 성모자 | 정음자 | 음가 | 성모자 |
| △ | [z] | 邪母 | ㅅ | [s] | 心母 | | | |
| 없음 | [dz] | 從母 | ㅈ | [ts] | 精母 | ㅊ | [ts ^h] | 淸母 |

15세기의 조선 한자음에는 치두음 내부에서 [z], [s], [ts], [ts^h] 4개 음가와 이에 대응하는 글자(△, ㅅ, ㅈ, ㅊ)가 존재했다. 치음의 불청불탁음 [z]에 대응하는 글자를 기본자로 삼지 않은 까닭은 △이 ㅅ의

14) 중세국어 문헌에 ‘어버△ |’와 ‘어버시’가 공존한 예가 확인된다.

어버시 子息 사랑호문<1447석보상절6:3b>. 어버시 섬교미<1474내훈언해1:39a>.

어버시 머기물 붓그레 너기나<1563은중경,16a>. 어버시는 애드라 흥며<1563은중경,17a>.

15) 차청음 [ts^h]에 해당하는 한자음 성모자와 훈민정음 초성자가 없기 때문에 <표 2>에서 빈칸으로 두었다.

불청불탁음이긴 하지만 ㅈ의 불청불탁음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인된 듯하다. 이런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훈민정음 창제자는 △[z]를 이체자로 돌려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음과 치음에서 ‘최불려’한 불청불탁음 [ŋ]와 [z]을 기본자로 취하지 않은 배경은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아음의 경우는 앞에서 논했듯이 운서에서 의모와 유모가 많이 혼용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혀 놓았다. 그러나 치음에서는 이런 해명이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 아음의 ‘최불려’ 음(즉 기본자에 대응하는 음) [ŋ]과 치음의 ‘최불려’ 음 [z]가 가진 공통점이 주목된다. 15세기 당시의 조선 한자음에서 [ŋ]음과 [z]음은 모두 어두의 음절초에 쓰이지 않았다. 조선어 고유어 음에서도 [ŋ]에 대응하는 ㅇ은 비어두 음절초의 극소수 예(바ㅇ그, 니ㅇ이다)에만 쓰였다. [z]에 대응하는 △은 ‘△그△그’과 같은 극소수 어휘를 제외하고는 어두 음절초에 쓰이지 않았고, 비어두 음절초에는 더러 쓰였다(니△그, 브△그 등). 어두 음절초에 쓰일 수 없는 음은 출현 분포상 큰 제약을 가진 것이다. 분포상의 제약, 그것도 어두 초성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은 독립 음소로서의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오음의 기본자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의 이런 해석은 기본자 설정에 대한 창제자의 판단을 좀 더 궁정적 관점에서 배려해 보려는 뜻을 담고 있다.

3) 후음의 기본자 설정과 후음 계열의 상관성

이어서 후음 기본자 설정과 후음 계열의 상관성에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훈민정음』 제자해의 내용, 즉 후음 기본자와 그 음가에 대한 기술은 앞의 ①과 ⑥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①에서 ㄴ, ㄹ과 함께 묶어서 ㅇ도 ‘기성최불려(其聲最不厲)’하기 때문에 제자의 시초 즉 기본자로 삼았다고 했다. ⑥에 포함된 구절 ‘ㅇ而ㅎ ㅎ而ㅎ’에서는 이 기본자(ㅇ)에 1단계 가획과 2단계 가획에 의해 ㅎ과 ㅎ이 각각 생성됨을 기술하였다. 그런데 후음 계열 ㅇ:ㅎ:ㅎ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 문자가 표상하는 음가의 상호

관계가 아설순치음 계열과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즉, 설음 ㄴ:ㄷ:ㅌ의 음성적 관계 및 순음 ㅁ:ㅂ:ㅍ의 음성적 관계는 후음 ㅇ:ㅎ:ㅎ의 음성적 관계와 상당히 이질적(異質的)인 것이다. ㄴ:ㄷ:ㅌ은 ‘유성비음:무성파열음:유기파열음’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관계는 ㅁ:ㅂ: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ㅇ:ㅎ:ㅎ에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15세기의 ㅇ에 적극적 기능을 가진 유성후두마찰음 [h]를 인정하더라도(이기문 1998:135), 이 음은 특수한 환경 그것도 비어두 위치에서만¹⁶⁾ 상정(想定)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어두의 ㅇ은 [h]이 아니라 무음가(無音價) 즉 zero라 할 수 있다.¹⁷⁾ 한편 ㅎ은 성문긴장음 [ʔ]을 표기한 문자로 판단되므로 ㅇ:ㅎ의 관계는 ㄴ:ㄷ 혹은 ㅁ:ㅂ의 상호 관계와 매우 다른 것이 된다. ㄷ:ㅌ 혹은 ㅂ:ㅍ은 평음:유기음의 대립 관계를 맺고 있지만 ㅎ:ㅎ의 관계는 그러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ㅇ:ㅎ:ㅎ은 글자꼴로 보아서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지만, 이들이 지시하는 음가의 상호 관계는 ㄴ:ㄷ:ㅌ 혹은 ㅁ:ㅂ:ㅍ의 경우와 다르다. 제자해에서 ㅇ:ㅎ:ㅎ을 다른 초성 계열과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기술했지만, ㅇ:ㅎ:ㅎ의 내적 관계는 다른 초성 계열의 상호 관계와 차이가 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문자가 표상하는 음가들의 실질적 상호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가획의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후음자 ㅇ:ㅎ:ㅎ를 이 패러다임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자해에서 위의 내용과 같이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이라는 오음에 일관된 기준(즉 가획)을 적용하여 기술한 것은 제자 체계의 균형적 패러다임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은 오음에 속하는 각 글자 자형의 구조적 대응과 평행적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제자 체계가 당대의

16) 이른바 적극적 기능의 ㅇ은 ㄴ, ㄷ, ㅌ 뒤에서 ㄱ이 탈락하는 환경(알-어늘, 물-애오개, ㄱ·△애)와 사동형의 ‘-오/우-’ 등에 국한된다(이기문 1998:135-136).

17) ㅇ이 무음가임은 『훈민정음』에서 스스로 말하고 있다. 且○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해례 18a>(또 ㅇ은 소리가 담하고 허하여 종성에 쓰지 아니하고 중성만으로도 가히 성음을 이룰 수 있다.) ㅇ은 실질적 음가가 없으므로 종성에 갖추어 쓰지 않아도 됨을 말한 것이다.

국어 자음체계에 내포된 음성계열 사이의 상호 관계(=대립 관계)의 실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초성 제자에서 오음법은 중국 운학의 방법론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최불려’의 개념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음으로 기본자를 만들어 가획법을 적용한 것은 훈민정음 창제자의 창의적 방법론이다. 오음법과 가획법과 관련된 창의적 방법론에서 위와 같은 해례의 설명이 나온 것이다.

4) ‘완급’(緩急) 개념의 과잉 적용에 따른 음성학적 타당성 결여
 종성해에서는 초성 글자들이 발음될 때 완급(緩急)에 따라 짝이 되는 두 음이 상호 교체된다고 기술해 놓았다.¹⁸⁾ 필자가 관심을 갖고 분석하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분석>

⑦ 五音之緩急 亦各自爲對如牙之○與ㄱ爲對 而○促呼則變爲ㄱ而急 ㄱ舒出則變爲○而緩. 舌之ㄴㄷ 脣之ㅁㅂ 齒之ㅅㅈ 喉之 ㅇㅎ 其緩急相對亦猶是也. <해례 18b>

오음의 완급은 또한 각각 스스로 짝을 이룬다. 아음은 ㅇ과 ㄱ이 (완급의) 짝이 되는바, ㅇ을 촉급하게 내면 ㄱ으로 되어 소리가 급하고 (=빠르고), ㄱ을 천천히 내면 ㅇ으로 변하여 느리게 된다. 설음의 ㄴ과 ㄷ, 순음의 ㅁ과 ㅂ, 치음의 ㅅ과 ㅈ, 후음의 ㅇ과 ㅎ도 완급에서 서로 짝이 되는 것도 이와 같다.

종성해의 원문에 제시된 핵심은 ㅇ과 ㄱ이 완급의 짝이며, ㅇ을 촉급하게(=빠르게) 발음하면 ㄱ이 된다는 것이다. ㄴ:ㄷ, ㅁ:ㅂ, ㅅ:ㅈ, ㅇ:ㅎ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비판적 검토>

위 ⑦이 종성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오음(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의 자음들)은 종성에 놓이는 자음들을 뜻하는

18) 『훈민정음』 해례에 나타난 완급의 체계적 고찰과 이에 대한 분석은 김유범(2009)의 4장을 참고할 수 있다.

것으로 판단된다. 오음의 각각에는 완급을 기준으로 서로 대(對)가 되는 짝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ㅇ과 ㄱ이 완급의 짝이 되는바 종성의 ㅇ을 빠르게[促] 내면 ㄱ으로 변하여 급한 소리가 된다고 하였다. 그 반대로 종성의 ㄱ을 천천히 내면[舒出] ㅇ으로 변하여 느린 소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ㄱ과 ㅇ이 완급에 따라 서로 대응한다는 이 설명은 음성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종성의 ㄱ[k]을 아무리 느리게 발음하여도 ㅇ[h]이 되지 않으며, 종성의 ㅇ을 아무리 촉급하게 발음해도 ㄱ으로 변하지 않는다.¹⁹⁾ 위 ⑦에서 ㄴ과 ㄷ, ㅁ과 ㅂ, ㅅ과 ㅈ, ㅇ과 ㅎ도 각각 이와 같다고 했다. 그러나 ㄴ을 아무리 촉급하게 발음해도 ㄷ이 되지 않으며, ㄷ을 아무리 천천히 발음해도 ㄴ이 나오지 않는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종성해의 이런 설명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보자. 종성에 놓이는 ㅇ, ㄴ, ㅁ을 발음해 보면 그 소리가 지속성을 가진다. ‘강’, ‘논’, ‘곰’의 종성은 호기가 계속될 수 있는 한 발음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각’, ‘놀’, ‘곶’의 종성은 순간적으로 닫혀서 소리를 지속할 수 없다. 종성 ㅇ, ㄴ, ㅁ이 가진 이런 지속성을 ‘완(緩)’이라 하고,²⁰⁾ 종성 ㄱ, ㄷ, ㅂ이 가진 폐쇄성을 ‘급(急)’이라 표현한 것이다. 종성에 놓이는 ㅇ, ㄴ, ㅁ과 ㄱ, ㄷ, ㅂ을 각각 완과 급으로 파악함은 온당하다.

그러나 아음 ㄱ:ㅇ, 설음 ㄴ:ㄷ, 순음 ㅁ:ㅂ을 각각 서로 짝이 되어, 전자(ㄱ, ㄷ, ㅂ)를 느리게 발음하면 후자(ㅇ, ㄴ, ㅁ)가 되고, 후자를 촉급히 발음하면 전자가 된다는 기술은 타당하지 않다. 달리 말해 ㅇ과 ㄱ을 각각 ‘완’과 ‘급’으로 설정함은 음성학적으로 타당하지만, 이들을 서로 관련지어 ㄱ을 느리게 발음하면 ㅇ이 된다는 식의 관계 설정은 음성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완급에 따른 이런 기술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19) 예컨대 ‘숙’의 종성 ㄱ을 아무리 느릿하게 발음해도 ‘송’이 되지 않으며, ‘숨’의 종성 ㅁ을 아무리 빠르게 발음해도 ‘습’이 되지 않는다.

20) 종성 ㅇ, ㄴ, ㅁ이 가진 이런 지속성을 변별자질론에서 마찰음에 부여된 [+continuent] 자질에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그러나 ㅇ, ㄴ, ㅁ이 종성에서만 그 발음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음들에 분절 고유 자질 [+continuent]를 부여할 수는 없다.

성운학에서 완급의 개념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 성운학에 ‘서촉(舒促)’이라는 용어가 있다. 한 음절이 모음이나 비자음(nasal consonant)으로 끝나는 소리를 서성(舒聲)이라 하고, -b, -d, -g 등과 같은 받침으로 끝나는 소리를 촉성(促聲)이라 한다(李新魁 著 朴萬圭 譯 1990:75-78). 이 ‘서촉’이란 용어는 중성해의 ‘완급’에 정확히 대응한다. 성운학과 해례본의 중성 서술에서 이런 용어상의 대응 관계를 찾아 볼 수 있다.

성운학의 ‘서촉’과 중성해의 ‘완급’ 개념은 중성의 음가 기술에 유용한 술어이다. 아음, 설음, 순음에서 〇:ㄱ 등을 서로 관련지어 기술한 것은 오음의 각 계열에 속하는 음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계 지어 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관계 설정을 도모한 시도가 중성의 〇:ㄱ 등에 지나치게 적용되어 〇을 느리게 발음하면 ㄱ이 된다는 식의 과도한 기술이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2.2. 중성자 제자론

5) 중성 11자에 적용된 상수론의 타당성 문제

『훈민정음』 제자해에는 중성 기본자 ㆍ 一 |를 만든 원리를 설명한 다음, 중성 11자에 삼재 원리, 오행 원리, 생성(生成)의 수(數)를 동시에 적용하여 각 중성의 속성을 기술한 문장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내용 분석>

⑧ ㄱ 初生於天 天一生水之位也. ㄴ 次之 天三生木之位也. ㄷ 初生於地 地二生火之位也. ㄹ 次之 地四生金之位也. <해례 6b>

ㄱ은 하늘(天)에서 초생(初生)한 것이니 천일(天一)이며 수(水)가 생겨나는 자리이다. ㄴ은 그 다음이니 천삼(天三)이며 목(木)이 생겨나는 자리이다. ㄷ은 땅(地)에서 초생(初生)한 것이니 지이(地二)이며 화(火)가 생겨나는 자리이다. ㄹ은 그 다음으로 지사(地四)이며 금(金)이 생겨나는 자리이다.

ㄷ 再生於天 天七成火之數也. ㄴ 次之 天九成金之數也. ㄹ 再生於地 地六成水之數也. ㄱ 次之 地八成木之數也. <해례 6b-7a>

ㄱ은 하늘(天)에서 재생(再生)한 것이니 천칠(天七)이며 화(火)를 이루는 수이다. ㄴ은 그 다음으로 천구(天九)이며 금(金)을 이루는 수이다. ㄷ은 땅(地)에서 재생(再生)한 것이니 지육(地六)이며 수(水)를 이루는 수이다. ㄹ은 그 다음으로 지팔(地八)이며 목(木)을 이루는 수이다.

水火未離乎氣 陰陽交合之初故關 木金陰陽之定質故關. <해례 7a>

수화(水火)는 아직 기(氣)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양이 교합하는 시초이므로 닫힘이다. 목금(木金)은 음과 양의 바탕을 정하는 것이므로 열림이다.

· 天五生土之位也 一地十成土之數也. <해례 7a>

· 는 천오(天五)이며 토(土)가 생겨나는 자리이고, 一은 지십(地十)이며 토(土)를 이루는 수이다.

〕獨無位數者 蓋以人則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固未可以定位成數論也. 是則中聲之中 亦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해례 7a-7b>

〕만 홀로 자리 수[位數]가 없다. 대개 사람은 무극(無極)의 참과 이오(二五)²¹⁾의 정기가 묘하게 합하여 영긴 것이니, 굳이 자리를 정하고 수를 이룸[定位成數]을 논할 수 없다. 이런즉 (〕는 중성의 가운데가 되고, 또한 스스로 음양과 오행과 방위의 수가 있다.

위 내용을 보면, 천과 지로 나누어진 위수(位數)에서 홀수 一三五七九는 생위(生位)가 되고, 짝수 二四六八十은 성수(成數)가 되어 있다. 홀수 一三五七九는 오행의 水木土火金에 각각 대응하고, 짝수 二四六八十은 오행의 火金水木土에 각각 대응한다. 각 중성에 배정된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생성의 위수(位數)를 기준으로 재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ㄱ 天一 生水之位
- ㄴ 地二 生火之位
- ㄷ 天三 生木之位
- ㄹ 地四 生金之位
- 天五 生土之位
- ㅁ 地六 成水之數
- ㅂ 天七 成火之數
- ㅅ 地八 成木之數
- ㅇ 天九 成金之數

21) 이오(二五) : 二는 음양, 五는 오행을 뜻한다. 즉 이오는 음양오행과 같은 말이다.

一 地十 成土之數

1 無位數者

<비판적 검토>

위 내용은 ‘天地人’이라는 삼재, ‘水木土火金’이라는 오행, 생성(生成)의 위수(位數)가 상호 작용하고 결합한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중성 체계를 파악한 것이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역학의 주요 이론을 통합하여 중성 체계를 해석한 것이며, 문자 체계와 역학의 핵심 원리를 정교하게 결합시킨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대의 세계관과 사상의 기본 원리를 문자 창제에 적용하여 위와 같이 체계화한 것은 당시의 최고 지식인이 행한 사유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천지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훈민정음 중성체계에 고스란히 담아낸 것은 훈민정음에 사상적 깊이를 부여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다.²²⁾

그러나 중성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을 부정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제자해의 초성에 대한 설명과 중성에 대한 설명은 수궁 정도 혹은 타당성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 제자해에서 초성의 제자 원리를 설명할 때, 오행의 성질과 초성 오음의 성질을 서로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⑨ 喉邃而潤 水也 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於時爲冬 於音爲羽.

<해례 2a>

목구멍은 깊고 젖어 있으니 (오행의) 수(水)이다. 그 소리가 비고 허통함이 물이 비어서 맑고 흘러 통함과 같다. 계절로는 겨울이요, 오음으로는 우(羽)이다.

牙錯而長 木也 聲似喉而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於時爲春 於音爲角. <해례 2a-2b>

어금니는 서로 어긋나고 길어서 (오행의) 목(木)이다. 그 소리가 목구멍소리와 비슷해도 실체 있음이 나무가 물에서 나뉘어 형태 있음과 같다. 계절로는 봄이요, 오음으로는 각(角)이다.

舌銳而動 火也 聲轉而颺 如火之轉展而揚揚也. 於時爲夏 於音爲徵.

22) 성리학 이론이 훈민정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백두현(2012:120-123)을 참고할 수 있다.

<해례 2b>

혀는 예민하고 잘 움직여 (오행의) 화(火)이다. 그 소리가 구르고 날리는 것이 불이 구르고 펼쳐 날리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여름이요 오음으로는 치(徵)이다.

齒剛而斷 金也 聲屑而滯 如金之 屑瑣而鍛成也. 於時爲秋 於音爲商.

<해례 2b>

이는 단단하여 끊는 것이니 (오행의) 금(金)이다. 그 소리가 부스러지고 걸리는 것이 쇠가 잔부스러기로 단련되어 이루어짐과 같다. 계절로는 가을이요 오음으로는 상(商)이다.

脣方而合 土也 聲含而廣 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 於時爲季夏 於音爲宮. <해례 2b>

입술은 모나고 합해지니 (오행의) 토(土)이다. 그 소리가 함축하여 넓은 것이 땅이 만물을 함축하면서 넓고 큼과 같다. 계절로는 계하(季夏)이고 오음으로는 궁(宮)이다.

喉乃出聲之門 舌乃辨 聲之管 故五音之中 喉舌爲主也. <해례 3a>

목구멍은 소리를 내는 문이고, 혀는 소리를 구별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오음 중에서 목구멍과 혀가 주장이 된다.

喉居後而牙次之 北東之位也. 舌齒又次之 南西之爲也. 脣居末 土無定位而 奇旺四季之義也. 是則初聲之中 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해례 3a>

목구멍은 (입의) 뒤에 있고, 어금니가 그 다음에 있으니 북과 동이 방위가 된다. 혀와 이가 그 다음에 있으니, 남과 서의 방위가 된다. 입술은 끝에 있으니, 흙이 정해진 자리가 없이 사계에 붙어 왕성함을 뜻한다. 이런즉 초성 가운데에 스스로 음양과 오행과 방위의 수가 있다.

음양과 오행을 초성과 중성에 적용하여 설명한 제자해의 위 내용들은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초성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 음양론 및 오행과 오음의 관련성 등은 각 초성이 지닌 음성적 특성과의 연결이 비교적 납득할 만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현대 언어학자와 일반인들에게 그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설명적 타당성 혹은 설득력을 가진다. 위에서 보듯이 초성 즉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은 신체의 각 부위가 갖고 있는 속성 및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초성을 오행과 관련지어 설명한 것은, 오음 각각의 음성적 속성과 오행 각각의 사물적 속성이 지닌 유사성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그것이다.

二字中聲之與 | 相合者四. **애·에·애·에**是也. <해례 16b>

두 글자 중성이 |와 서로 합한 것은 넷이니, **애·에·애·에**가 이것이다.

위 문장은 중성해에 나오는 것으로 이른바 |상합자를 만드는 방법을 간명하게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의 글자꼴 문제이다. ·는 중성 ·에 |가 합쳐진 것으로 ‘一字中聲之與 | 相合者’ 중의 하나이다.

<비판적 검토>

해례에 나타난 중성자 전체의 개요를 파악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본자의 합성 방법에 근거하여 중성자의 부류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표 3> 중성자의 부류

| 부류 | 해당 중성자 |
|-----------|------------------------------------|
| 기본자(3) | · ㅡ |
| 초출자(4) | ㅏ ㅑ ㅓ ㅕ |
| 재출자(4) | ㅛ ㅜ ㅝ ㅟ |
| 일자 중성(10) | 상합자 : · ㅡ ㅏ ㅑ ㅓ ㅕ ㅛ ㅜ ㅝ ㅟ |
| 이자 중성(4) | 상합자 : 애·에·애·에 |

위 중성자 중 기본자+초출자+재출자를 합하면 모두 11개가 되며, 이 글자들이 제자해에 기술된 중성 11자이다. 1자 중성의 |상합자와 2자 중성의 |상합자는 중성해에 기술되어 있다. 제자해에 기술된 중성 11자는 이른바 훈민정음 ‘스물여덟 글자’에 포함되고, |상합자 14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들이다. **ㅏ**는 상합²⁴⁾의 뜻이 없는 초출자이고, ·| [ʌ]는 ·에 |를 상합한 글자이다. 그러나 ·를 등근 점으로 표기한 『훈민정음』 해례에서 이 두 글자의 자형은 서로 비슷해져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ㅏ**와 ·|의 자형이 동일한 자

24) 이 ‘상합’은 초성자 기술에 쓰인 ‘합용’과 그 뜻이 비슷한 점이 있다. 초성의 ‘합용’이 중성에서는 ‘상합’으로 달리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글자의 시각적 시차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ㅊ에서 초성은 ㅊ의 왼쪽에 결합하고 ㅊ에서 초성은 ㅊ의 위쪽에 결합된다. 초성이 없는 단독형으로서의 ㅊ와 ㅊ는 글자꼴의 유사성이 현저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글자꼴이 달라져서 그 구별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았다.

3.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훈민정음』 해례에 기술되어 있는 제자론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해당 원문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논하였다. 필자가 논한 주요 내용을 묶고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 기본자 설정에서 ‘최불려’의 원칙을 벗어난 경우가 있다. 아음과 치음의 경우가 그것이다. 초성 오음에서 아음은 [ŋ], 설음은 [n], 순음은 [m], 치음은 [z], 후음은 [h]음이 불청불탁음으로서 ‘최불려’한 음성에 해당한다. 설음 ㄴ, 순음 ㅁ, 후음 ㅇ은 ‘최불려’한 각각의 음성 [n], [m], [h]에 대응되는 것이어서 ‘최불려’의 원칙을 지켰다. 그러나 아음과 치음에서는 ‘최불려’ 음 [ŋ]과 [z]를 기본자로 삼지 않고 [k]와 [s]에 대응하는 글자를 기본자로 삼았다. ‘최불려’한 음(ㅇ,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들을 기본자로 설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각 계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서로 다르다. 아음의 경우는 한자음에서 의미와 유모가 혼용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점을 인정하더라도 [ŋ]음을 기본자에 대응시키지 않은 조치는 가혹으로 이어지는 아음 제자의 체계적 균형을 깨트리게 되었다.

치음에서 불청불탁음 [z]에 대응하는 글자(△)를 기본자로 삼지 않은 까닭은 △이 ㅈ의 불청불탁음이지만 ㅈ의 불청불탁음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기인된 듯하다. 이런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훈민정음 창제자는 △[z]를 이체자로 돌려놓았다. 이는 △음이 우리 말의 어두음 표기에 사용되지 않는 분포 제약을 고려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있다.

설음 ㄴ:ㄷ:ㅌ과 순음 ㅁ:ㅂ:ㅍ은 각각 ‘유성비음:무성파열음:유기파열음’의 내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후음의 경우 ㅇ이 유성의 [h]임을 인정하더라도, ㅇ:ㅎ:ㅎ의 관계는 ‘유성후두음:성문긴장음:유기후두마찰음’이 된다. 이 관계는 ㅁ:ㅂ:ㅍ과 ㄴ:ㄷ:ㅌ이 가진 ‘유성비음:무성파열음:유기파열음’의 관계와 매우 이질적이다. 이런 이질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ㅇ:ㅎ:ㅎ에는 가획의 원리가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다. 다른 초성자와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제자했지만 후음자 내부의 상호 관계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후음 계열의 제자에서 문자가 표상하는 음가들의 실질적 상호 관계를 중시하지 않았지만 가획의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중성해에 쓰인 완급의 개념은 중성에 오는 불청불탁음(비음, ㄴㅇ)과 이에 대응하는 전청음(ㄷㅂㄱ)에 적용되었다. 중성해에서 중성의 ㅇ을 빠르게[促] 내면 ㄱ으로 변하여 급한 소리가 되고, 중성의 ㄱ을 천천히 내면[舒出] ㅇ으로 변하여 그 소리가 느리게 된다고 기술해 놓았다. ㄱ을 아무리 촉급하게 발음해도 ㅇ이 되지 않으며, ㄱ을 아무리 천천히 발음해도 ㅇ이 되지 않는다. 중성에 오는 무성폐쇄음과 비자음을 연관 지어 완급 관계로 본 해례의 기술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성의 무성폐쇄음을 천천히 발음하면 비자음이 되고, 비자음을 빠르게 발음하면 무성폐쇄음이 된다는 기술은 음성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완급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음성학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성 제자론에 적용된 상수론은 생성(生成)의 위수(位數)를 중성과 연관시킨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것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두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중성 체계와 상수론의 원리를 정교하게 결합시켜 음운학과 철학을 융합시킨 사상적 성취라 평가할 수 있다. 천지 만물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수학적 원리를 훈민정음 중성체계에 담아내어 훈민정음에 사상적 깊이를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초성의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에 오행을 각각 대응시켜 설명한 것과, 중성에 상수론을 적용한 것을 비교해 보면 그 타당성에 차이가 있다. 중성 각각에 천지의 생

성과 위수를 적용한 것은 초성에 오행을 적용하여 설명한 것과 달리 현대인들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중성 11자에 결합된 생성의 위수들은 중성이 지닌 음성적 속성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11자 중성에 ‘天一’, ‘地二’ 등 생성의 위수를 배정하여 설명한 것은 역학적 세계관의 과잉 적용이라 보았다.

끝으로 중성 기본자를 합성한 초출자 ㅏ와 ㅣ상합자 ㅑ의 자형이 서로 비슷해진 점을 지적하였다. ㅑ와 ㅣ를 합한 초출자와 ㅑ와 ㅣ를 합한 상합자는 그 구성 요소가 같아서 글자꼴이 매우 유사하게 되었다. ㅏ와 ㅑ가 자형상 비슷하지만 실제 사용에서 ㅑ 위쪽에 항상 초성이 결합함으로써 서로 혼동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본론에서 비판적으로 다룬 여섯 가지 사항이 서로 대등한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아음 기본자 설정에서 체계적 균형을 잃은 점, 완급 개념의 지나친 적용으로 음성적 타당성을 결여한 점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다. 그리고 중성에 생성의 위수를 부여한 상수론은 긍정과 부정 두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치음 기본자 및 후음 기본자 설정과 각 계열 내부의 상관성에 나타난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성자 합용에서 비롯된 자형상의 유사성은 실제 사용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주제어 : 훈민정음, 제자론, 아음 기본자, 중성자 자형, 가획(加劃), 중성의 완급(緩急).

참고문헌

- 강규선(2001), 『훈민정음 연구』, 보고서.
 강신항(1987/1994), 『증보판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_____(2003), 15세기 국어의 치음-치음과 한글 표기, 139-167, 『韓漢音韻史 연구』, 태학사, 2003에 재수록.
 강창석(1989), 훈민정음의 제작 과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울산어문논집』 5호,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49.

- 강창석(1992), 15세기 음운이론의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6), 한글의 제자원리와 글자꼴, 『새국어생활』 6-2, 국립국어연구원, 19-35.
- 권재선(1995), 『훈민정음 해석 연구』, 우골탑.
- 김무식(1993), 훈민정음의 음운체계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 논문.
- _____ (1998), ‘훈민정음’에 나타난 음성학 술어의 특징과 의미, 『수련어문논집』 24, 수련어문학회, 1-16.
- 김슬옹(2007), ‘훈민정음’ 문자 만든 원리와 속성의 중층 담론, 『한민족 문화연구』 21, 한민족문화학회, 95-135.
- 김영만(1987), 훈민정음 자형의 원형과 생성체계 연구, 『국어국문학논총』 (장태진 박사 회갑 기념), 삼영사, 43-70.
- 김영송(1976), 훈민정음의 홀소리 체계, 『논문집』 15, 부산대학교.
- _____ (1988), 훈민정음의 모음체계, 『훈민정음의 이해』, 신상순이돈주 이환목 편. 한신문화사, 81-112.
- 김완진(1975), 훈민정음 자음자와 가획의 원리. 『어문연구』 7·8 합병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일조각, 186-194.
- _____ (1983), 훈민정음 제자 경위에 대한 새 고찰, 『사학논총』(김철준 박사 회갑 기념), 지식산업사, 353-366, <김완진(1996)에 재수록>.
- _____ (1984),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19, <김완진(1996)에 재수록>.
- _____ (1996),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 김용배(2000), 훈민정음에 나타난 중국 운학의 창조적 내용, 『목포어문학』 2,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25-233.
- 김유범(2009),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바라본 해례본 『훈민정음』 기술 내용의 몇 문제, 『한국어학』 43호, 한국어학회, 105-124.
- 박병채(1976), 『훈민정음』, 박영사.
- 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 백두현(2009), 훈민정음 해례본의 텍스트 구조 연구, 『국어학』, 54호, 국어학회, 75-107.
- _____ (2010),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과 『합부훈민정음』 연구, 『朝鮮學報』 214집, 朝鮮學會, 1-29.
- _____ (2012),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어문논총』 5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15-156.

- 안명철(2005),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기호론, 『국어학』 45, 국어학회, 213-241.
- 안병희(1990),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 대하여, 『강신항교수 회갑기념국어학논문집』, 135-145.
- _____ (2002), 훈민정음(해례본) 3제,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173-197.
- _____ (2003), 해례본의 8종성에 대하여, 『국어학』 41, 국어학회, 3-24.
- _____ (2004)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그 협찬자, 『국어학』 44, 국어학회, 3-38. <안병희(2007)에 재수록>.
- _____ (2007), 『훈민정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창균(1989), 황극경세서가 국어학에 끼친 영향, 『석당논총』 1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69-102.
- _____ (1998), 『훈민정음 역주』, 형설출판사.
- 이근수(1995), 『훈민정음 신연구』, 보고서.
- 이기문(1974),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2, 국어학회, 1-15.
- _____ (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돈주(2003), 『韓中 한자음연구』, 태학사.
- 李新魁 著 朴萬圭 譯(1990), 『中國音聲學概論』, 한국학술진흥재단번역총서 72, 대광문화사.
- 이정호(1975),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그 역학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현희(1990), 훈민정음,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615-631.
- _____ (2003), 훈민정음 연구사. 『한국의 문자와 문자연구』, 송기중·이현희·정재영·장원희·한재영·황문환 편, 2003, 집문당, 593-626.
- 임용기(2002), ‘삼분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와 중성체계 분석의 근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애산학보』 27, 애산학회, 65-90.
- 전정례·김형주 공저(2002), 『훈민정음과 문자론』, 역락.
- 정광(2009), 훈민정음의 중성과 파스파 문자의 모음자, 『국어학』 56, 국어학회, 221-247.
- 조규태(2010),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개정 3판, 한국문화사.
- 최현배(1981), 『고친 한글갈』, 정음문화사.
- 홍윤표(2005), 훈민정음의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국어학』 46, 국어학회, 54-66.

이 논문은 2014년 1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4년 3월 14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백두현

소속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소 :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전화 번호 : 053-950-5107

전자우편 : dhpaek@knu.ac.kr

A Critical Study on the Theory of Hangeul Formation as Presented in the *Hunminjeongeum Haerye*

Paek, Doo-hyeon

[Abstract]

This study points out five problematic issues to be found in the theory of letter formation written out in the *Hunminjeongeum Haerye*, and discusses their contents from a critical viewpoint. Of the five issues discussed by the author, the most serious problem resulting in a breach of the structure of letter formation is the designation of the basic letter for molar sounds. The heart of the issue is that due to the influence of Chinese rhyme sound patterns, the weakest sound among the molars, ㅇ [ŋ], was not designated as the basic letter. A similar problem, that of designating the basic letter as one that is not a sound neither clear nor muddy (不清不濁音), also appears in dentals as well. However, the neither clear nor muddy sound △ in Korean has a very limited usage, so that its displacement is not a serious issue. The study also points ou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and stroke-added letterforms of laryngeals are of an entirely different nature from that of molars, linguals, labials, and others.

This study also finds inappropriate over-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speed (緩急) in the system of final sounds, resulting in explanations saying that pronouncing ㅍ slowly gives ㅇ and pronouncing ㅇ rapidly gives ㅍ. This is one of the faults that can be found in the letter formation theory of *Hunminjeongeum Haerye*. The letters ㅇ and ㅍ among the finals can be matched as a pair in speed, but the explanation found in the Jongseonghae (Explanations of the Final Sounds) that ㅇ pronounced rapidly becomes ㅍ, a tense sound, lacks phonetic integrity. Such a relationship of alternation by way of speed change cannot be found in other pairs of speed as presented in the Haerye, such as ㄴ and ㄵ, ㅁ and ㅃ, △ and ㄹ, or ㅇ and ㅇ̄.

A positive take o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Xiangshu (Images-Numbers) and generative status number (生成位數) to the theory of forming the medial letters could consider it to be an effort to add

philosophical depth to Hunminjeongeum. However, in another light, it can be considered an over-application of the theory of the Book of Changes (周易). Compared to the application of the Five Elements (五行) to the theory of forming the initial letters, the application of Xiangshu theory and generative status number to the formation of medials lacks persuasion and naturalness.

Finally, the study points out the possible confusion of letterforms between the shapes of ㅍ and ㅑ. Fortunately, in actual use, ㅑ is always preceded by an initial consonant. This results in the ㅑ being placed under an initial at all times, so that the forms of ㅍ and ㅑ are not easily confused in practice.

Keywords : Hunminjeongeum, Letter formation theory, Basic letter for molars, Medial letterforms, Gahoek(加劃 stroke-addition), Speed of final sounds.